

# 韓國의 現行 索引誌에 관한 分析的 研究

이 절 자\*·박 준 식\*\*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現行 색인지의 분석 |
| II. 색인지 평가요소의 분석 | A.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
| A. 평가기준의 여러 이론   | B. 분석결과         |
| B. 색인지 평가요소      | IV. 결론 및 제언     |
|                  | Abstract        |

## I. 서 론

색인지는 정보원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정보전달 매체로서 특정 주제분야의 문헌을 탐색하거나 연구의 성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헌의 서지적 사항 또는 그 문헌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탐색도구이다. 오늘날 사회의 다양화와 학문의 세분화 및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주제 분야의 출판물이 대량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연구자들은 그들 분야에서 출판되는 각종 문헌을 인지하고 수집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되게 됨에 따라 출판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색인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색인지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학문연구를 폭넓게 지원해 주며 연구의 중복을 방지한다. 그러므

\*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사서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로 사서를 포함한 정보전문가에게는 이러한 이차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색인지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색인지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분야별 색인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 문헌의 증가양상을 보면 1차자료 보다는 2차자료의 증가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2차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2차자료 특히 색인지의 출판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진보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두번째의 문제점은 이미 출판된 색인지 마저도 색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편자의 편의에 따라 편성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색인지의 편성방침, 배열방법, 기술형식 등 거의 전 부분에서 나타난다. 색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분야의 서지통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색인지들은 대부분이 편집상의 문제로 인하여 진정한 서지통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색인작성자가 그러한 방법론을 모르고 있거나 자의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현행 색인지들의 외형적 기준뿐만 아니라 내용적 관점을 포함하여 색인지 전반에 걸쳐 분석 평가함으로써 색인지 출판의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색인지 편집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1973년 1월부터 1993년 말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색인지들에 대한 연도별, 주제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색인지의 발전추이와 주제분야별 서지통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한국 색인지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작은 토대가 될 것이다.

## II. 색인지 평가요소의 분석

### A. 평가기준의 여러 이론

적절한 색인지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어떠한 색인지가 발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용목적에 적합한 색인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그 평가요소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Winchell<sup>1)</sup>은 연속간행물 기사색인의 평가요소로 크게 색인의 범위, 수록자료의 시간적 범위, 간행빈도와 신속성, 색인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색인의 질 등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Winchell은 특히 색인의 질과 관련된 요소로써 배열법을 강조하여 어떤 배열방법을 채용하였으며, 부차적 배열방법으로서 세목의 전개방법을 살펴보고, 그 배열의 일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Cheney<sup>2)</sup>는 Winchell이 내용적 관점에 치중한데 비해 색인지의 형식적 관점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Cheney는 이차자료의 평가기준으로 색인지에 수록된 문헌 수와 수록범위, 편자의 권위성, 배열방법, 서지적 사항(저자, 서명, 출판사항, 형태사항, 총서주기 등)의 완전성, 간행빈도와 누적판, 지질과 제본의 견고성, 현존하는 다른 색인지와의 중복여부 등을 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역시 배열방법으로 이용자가 찾고자하는 항목을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확한 상호참조와 색인이 풍부하고 정확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 Constance M. Winchell, *Guide to Reference Books*. 8th ed. Chicago, A. L. A., 1969, p. 144.

2) Francis N. Cheney, *Fundamental Reference Sources*. Chicago, A. L. A., 1975. pp. 279-281.

또한 Katz<sup>3)</sup>는 색인지 평가를 위한 요소로 출판사의 권위, 색인의 범위, 색인지 사이의 중복과 결함, 색인법의 깊이, 간행빈도, 체제의 편리성, 사용된 주제명표목과 충분한 상호참조, 기술의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열거하여 Cheney와 비슷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Katz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가장 최선의 평가를 위한 요소로는 정확하고, 사용하기 쉽고, 레이아웃(지면배정)과 표현, 주제명표목의 선택, 적절한 상호참조, 실제사용에 있어 전반적인 효과, 잘못된 점의 최소화 등이라 하였다.

한편 Borko 와 Bernier<sup>4)</sup>는 Winchell과 Katz의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평가기준에 영향을 받아 일반적 사항으로 충분한 사용법 해설과 수록된 주제분야가 다른 색인들과의 중복 정도, 간행빈도와 속보성, 적용범위의 완전성, 색인의 질과 관련된 요소로 색인형태(배열), 권위성, 기입의 완전성, 상호참조의 적합성 여부, 인쇄된 색인지의 질 등을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다.

오래전부터 색인을 평가하려는 많은 노력에는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색인법과 그렇지 못한 색인법과를 구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다<sup>5)</sup>. 색인의 적부는 어느 한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의 결과이며, 효율적인 색인은 색인된 문헌중의 정보를 추적하는데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네사람의 제 평가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평가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큰 무리없는 평가지침이 될 것이다.

3) William A. Katz,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1, Basic Information Sources*. N. Y., McGraw-Hill, 1982. pp. 116-121.

4) Harold Borko and Charles L. Bernier, *Indexing Concepts and Methods*. N. Y., Academic Press, 1978. pp. 207-210.

5) H. Feinberg, *Title Derivative Indexing Techniques: a Comparative Study*. Metuchen, Scarecrow, 1973. p. 29.

## B. 색인지 평가요소

### 1. 수록범위

수록범위에는 크게 두가지의 평가요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첫째는 수록해야 할 대상자료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는 색인의 유용성 결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수록대상이 되는 일차자료의 종류에는 연속간행물 외에도 단행본, 특허,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회의록 등이 있으므로 수록된 자료가 어느 한 종류의 일차자료에만 한정되었는가, 또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sup>6)</sup> 둘째는 그 수록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 기사내용에서 취사선택해야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취사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록범위가 종합적, 포괄적 범위를 가졌다면 모든 형태, 모든 주제, 모든 언어, 모든 기사의 자료가 포함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sup>7)</sup> 어떤 주제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려면 포괄적으로 수록된 색인지를 필요로 하나 사실상 완전히 포괄하기란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수록 잡지수와 수록 문헌수를 참작하여 수록건수가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포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수록범위가 선택적이라면 선택의 기준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그 선택기준이 대상독자에게 적절하며, 주제, 언어, 기간,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sup>9)</sup> 연속간행물 기사색인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전문분야별로 주제전문화해가는 경향에 뒤이어 또 하나의 주요한 변화는 수록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제한된 선택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6) Borko & Bernier, *op. cit.*, p. 208.

7) Cheney, *op. cit.*, p. 279.

8) Katz, *op. cit.*, p. 116.

9) *Ibid.* p. 279.

색인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의 범위도 서명, 서문, 벌레 등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sup>10)</sup> 초창기에는 종합색인 형태로 출판되던 것이 차츰 학문영역별로 전문화되어 한 주제가 다른 연관된 주제들 같이 다루어 볼 수 있게 편성되어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해지게 되었다.

평가자는 발행자의 서문만 믿지 말고 수록범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① 수록된 주제분야 ② 색인된 간행물의 종류와 권호수 ③ 수록기간 ④ 선택기준 등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

## 2. 간행빈도와 누적색인

연속간행물은 연속성을 지니고 발간되므로 계속성, 간행빈도, 신속성은 이 자료들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간행빈도가 적절하며, 기사가 출판되어 색인으로 되어 나오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sup>11)</sup> 원논문이 간행된 후 색인지에 수록될 때까지 타임레그(time leg)는 짧을 수록 좋으며, 속도성은 특히 현황에 관한 검색시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sup>12)</sup> 또한 소급탐색시에는 누적색인의 유무가 색인지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누적색인이 간행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기적인 간격으로 간행되었는가를 체크하여야 한다.<sup>13)</sup>

## 3. 분류

다양한 정보와 주제를 담고 있는 문헌을 류별하는 분류는 색인 편집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분류하는 목적은 방대한 양의 문헌을 관련성있는 주제끼리 가능한 한곳에 모아 손쉽게 검색하기 위함이다.

10) Borko & Bernier, *op. cit.*, p. 207.

11) *Ibid.* p. 208.

12) Katz, *op. cit.*, p. 118.

13) Winchell, *op. cit.*, p. 144.

연속간행물 기사색인도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사의 주제에 따라 주제명에 의해 배열하는 방법과 학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배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 주제명색인

주제명에 의한 색인이란 각 문헌내용의 주제로서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명에 따라 배열된 색인으로 단순히 각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에 의해 직접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념을 항상 같은 용어에 의해 검색하므로써 검색효율이 높으나, 주제명에 의한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되는 관계로 연관된 주제가 인접되지 않고 분산 배열되는 결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제명의 선정은 문헌내용의 완전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에 있어서도 범위, 방법, 대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sup>14)</sup>

주제명색인은 먼저 문헌의 주제에 따라 정확한 주제명을 제시해주고 이미 채기된 주제명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어휘로 채기된 관련 있는 주제명을 상호참조법에 의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sup>15)</sup> 한국 색인지 가운데 주제명색인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교육목록」<sup>16)</sup>과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sup>17)</sup>이 있다.

b. 분류색인

채택된 분류표 또는 학문의 체계에 따라 배열된 색인으로 기사의 전체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논리적인 체계에 의하여 숫자순이나 문자순으로 배열한 일종의 주제순 색인이다. 분류색인은 포괄적인 주제에서부터 특정한 주제로 세분되는 관련 주제의 계층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14) 朴俊植, 參考調査論,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 262.

15) Cheney, *op. cit.*, p. 280.

16) 中央大學校 韓國教育問題研究所 편, 韓國教育目錄: 主題 및 著者 綜合索引,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60.

17) 朴俊植, 韓國圖書館關係文獻索引, 1945-1974, 대구, 慶北圖書館學會, 1976.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의 서가를 훑어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보자료 파일을 탐색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sup>18)</sup>. 이러한 분류색인은 관련주제를 체계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 관련정보의 검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들이 필요한 주제의 문헌을 얻기 위해서는 분류에 관한 주제색인에서 주제를 확인하고, 다시 분류색인을 확인해야 하는 이중적인 검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류색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들 수 있다.

#### 4. 배열

색인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배열 문제이다.<sup>19)</sup> 즉 독자가 원하는 주제 또는 항목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곧 색인의 기본기능이기 때문이다<sup>20)</sup>. 가장 훌륭한 배열은 이용자가 색인의 대상인 자료의 구성이나 그 주제의 체계를 모르더라도 가장 쉽게 찾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어떤 색인에서든 가장 훌륭한 배열방법은 저자, 서명, 분류, 주제명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도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색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1) 항목(저자명, 서명, 주제명)의 자모순 배열 2) 여러 항목을 혼합 배열한 사전체식 배열 3) 분류순 배열이 있고 이 외에도 역사적 자료를 위한 연대순(혹은 역연대순), 보고서 등을 위한 번호순 등이 있다.

##### a. 항목의 자모순 배열

18) Cleveland, *op. cit.*, p. 36.

19) Cheney, *op. cit.*, p. 280.

20) *Ibid.* p. 220.

21) Katz, *op. cit.*, p. 120.



원칙적으로 철자에 근거한 배열로 字順배열과 語順배열중에서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어순배열을 택한다. 양질의 색인은 그 자모순 배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다. 자모순 배열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몇 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정보를 배열하는 하나의 보편적 방법이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모순 배열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이지만 자연어 자모순 배열은 보기보다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자모순 배열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칙과 관례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sup>22)</sup> 단순히 논제를 표목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일제식민정책자료목록」<sup>23)</sup>이 있고, 저자명으로 배열한 것으로는 「스포츠심리학 문헌목록」<sup>24)</sup>과 「경영학문헌목록」<sup>25)</sup>등이 있는데 이들은 저자나 논제 어느 하나라도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막연히 주제로서 문헌을 탐색하기에는 불가능한 배열 체제인 것이다.

#### b. 사전체식 배열

사전체식 배열은 사전의 문자나 낱말의 배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열한 것으로 저자명, 서명, 주제명의 어느 것으로든지 검색될 수 있도록 혼합하여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이용의 편리한 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배열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배열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공어휘의 발달에 따라 그 순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배열을 위해서는 권위 있는 낱말사전을 기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자명, 서명, 주제명의 자모순에 의해서만 배열되므로 연관 주제간의 연관성이 결여된다는 단점도 있다.

22) Cleveland, *op. cit.*, p. 86.

23) 日帝植民地政策資料目錄. 서울, 韓國社會科學研究協會, 1979.

24) 이강현, 정청희 공편, 스포츠심리학문헌목록. 서울, 보경문화사, 1990.

25) 韓國經營教育委員會 편, 經營學文獻索引: 1945-1984. 5. 서울, 한국경영교육위원회, 1984.

사전체식배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의 「한국교육목록」과 박준식의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이 있는데 주제명과 저자(인명)를 혼합하여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그 주제명 하에서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저자 하에서는 발표순으로 배열하였다.

### c. 분류순 배열

KDC 나 DDC의 분류체계를 모방하여 개념의 논리적인 순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분류순배열에 사용하는 분류표는 이용자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분류표에 포함된 용어의 자모순색인도 제공하여야 한다.<sup>26)</sup> 분류순에 의한 배열과 주제명에 의한 배열은 다같이 주제에 의해서 자료가 검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주제명에 의한 배열은 단순히 각 주제를 나타내는 문자에 의한 배열이기 때문에 각 주제명의 앞뒤사이에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 분류순에 의한 배열은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숫자나 문자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의 주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 이용자가 한 곳에서 원하는 주제 뿐 아니라 관련된 주제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미 색인지들이 주제명과 저자를 혼합한 사전체배열 방식을 많이 채용하는데 비해 한국 색인지들의 대부분이 분류색인으로서 1차로 분류항목에 의해 배열하고 동일한 분류항목 내에서는 저자나 논제에 따른 2차배열을 하고 있다.

## 5. 기술형식

색인대상 문헌에 대한 서지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기록하는 일은 해당문헌을 식별하고 탐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sup>27)</sup> 서지데이터 기술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26) Winchell, *op. cit.*, p. 145.

27) *Ibid.* p. 145.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들 중에는 국제표준기구의 ISO 999-1975 Documentation-Index of Publication<sup>28)</sup>이 있고, 국가수준의 지침서에는 미국의 ANSI 39. 4-1984 Basic Criteria for Indexes<sup>29)</sup>, 영국의 BS 3700-1988 Preparing indexes to books, periodicals and other documents<sup>30)</sup>, 일본의 科學技術情報流通技術基準 SIST 13-1989 索引作成(案)<sup>31)</sup> 등이 있다. 그러나 작성기관이 저마다 세부적인 내용과 포맷을 결정하고 있어서 색인작성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반드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기사색인에서 포함하여야 할 서지적인 사항은 ① 문헌번호 ② 저자명 ③ 기사명(표제) ④ 소재지시(잡지명, 권호수, 발행년월, 수록면수)등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sup>32)</sup> 이들 요소들은 반드시 어떤 순서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의 순서에 있어서 저자명과 논제는 배열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 6. 상호참조

주제명이나 사전체에 의해 작성 편성된 색인의 경우 논리적 체제에 의하여 배열된 분류순색인과 달리 주제명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는 주제끼리 분산되어 전혀 관계없는 자료가 앞뒤에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sup>33)</sup>

- 
- 28)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999-1975 Index of Publication*. ISO, 1987.
- 29)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Z39. 4-1984 Basic Criteria for Indexes*. New York, ANSI, 1985.
- 30)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 3700-1988 Preparing Indexes to Books, Periodicals and Other Documents*. BSI, 1988.
- 31) 日本科學技術情報流通技術基準委員會, 科學技術情報流通技術基準 SIST-13-1989 索引作成(案). 東京,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 1989.
- 32) 朴俊植,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 國회도서관보, Vol. 12, No. 7 (1975. 6-7), p. 5.
- 33) 山下榮 編, 件名目録の 實際.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0. pp. 50-51.

① 주제명은 사용된 주제명표목표로 부터 선정된 것이지만 이용자는 반드시 선정된 주제명으로 찾는 것은 아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구하는 주제보다도 상위의 주제에서 찾는 수가 있다.

③ 특정주제를 검색하면서도 일반표목(예 : 역사, 사전)의 것을 찾는 수가 있다.

④ 관련주제가 음순배열로 인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주제를 찾는 것이 쉽지않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참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호참조는 주제명색인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이 참조에 의해서 한 주제명에 관계되는 유사주제와 그 주제명의 파생을 이해할 수 있다.<sup>34)</sup> 상호참조에는 보통 보라참조, 도보라 참조, 일반참조가 있다.<sup>35)</sup> 이러한 상호참조는 항목의 검색과 관련항목의 검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인명과 주제명등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sup>36)</sup>, 상호참조한 항목과 관련 있는 다른 항목을 적절히 연결시켜 주는 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7. 보조색인

검색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항목의 기본적인 배열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색인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정확성과 풍부함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sup>37)</sup> 예를 들면 분류순 색인에서 주제색인을 만들어 주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저자 및 서명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을 만든다.<sup>38)</sup> 만일 보

34) 金南碩, *op. cit.*, p 260.

35) 주제명표목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8. pp. 12-16.

36) Borko & Bernier, *op. cit.*, p. 210.

37) Cheney, *op. cit.*, p. 280.

38) 長澤雅男, *op. cit.*, p. 204.

조색인이 없다면 상호참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문헌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가, 어떤 유형(사전체, 분류순, 사항색인등)의 색인이 준비되어 있는가, 색인이 있으면 다른 관련있는 항목(또는 내용)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색인은 적절한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연속간행물 색인지 평가를 위한 기준을 7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색인의 체제와 이용법 해설의 포함여부, 편자나 출판사의 능력과 권위, 체제에 있어 인쇄와 지질, 제본의 견고성, 현존하는 다른 색인지들과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가, 부록으로 사용된 연속간행물 리스트와 약어 표등이 수록되어 있는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색인지의 질은 기술된 평가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필요성과 언어에 대한 색인의 적용에 의해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비용문제, 준비와 출판에 대한 시간적 제한, 요구되어지는 색인지의 규모, 색인지 작성자와 다른 요원들의 기술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색인지는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만족시키도록 기대할 수는 없으나 가장 최선의 평가를 위한 요소는 단순하고, 정확하고, 사용하기 쉽고, 잘못된 점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 Ⅲ. 현행 색인지의 분석

#### A.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분석 대상자료는 1973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단행본 형태로 출판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지에 한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여러 주제가 광범위하게 수록된 종합색인지 17종, 단일 주제 또는 한 주제와 연관된 인접주제를 수록한 주제색인지 214종등 합계 231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앞장에서 논의된 평가기준을 응용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별 색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출판경향, 편성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 B. 분석결과

### 1. 간행현황

수집된 자료를 주제가 광범위하게 수록된 종합색인지와 단일주제 또는 연관된 인접주제를 수록한 주제색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된 색인지 231종 가운데 종합색인지의 성격을 띤 것은 모두 17종이나 사실상 포괄성에 의한 종합색인지는 8종이고, 그 외는 1969년 연세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각 대학교 소장 연속간행물 기사색인들이 하나둘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색인지는 보통 정부기관, 연구기관, 학술 및 전문직 단체, 실업 및 산업분야 기업체, 출판사 등에서 간행되고 있는데, 학회나 협회에서 간행되는 색인지가 세계적으로 전체 색인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sup>39)</sup> 또한 정보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영리적 추구를 기본목적으로 출판사에서 색인지를 간행하는 예는 국내에서는 금전에 의한 정보활용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세계적으로 전체 색인지의 약10%가 출판사에서 간행되고 있다<sup>40)</sup>고 한다.

주제색인지는 인문과학 54종, 사회과학 119종, 자연과학 42종 등 모두 214종으로 수량적인면에 있어 사회과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색인지들의 주제별 발전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듀이십진분류표(DDC)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듀이십진분류표상의 10개 주제분야중 사회과학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철학, 종교, 어학, 순수과학 분야는 발간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9) S. V. Keenan & M. Elliot,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Vol. 64(1973), pp. 145-150.

40) D. B. Cleveland & A. D. Clevelan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tracting*. Littleton, U. S. A., Libraries Unlimited, 1990. p. 245.

〈표 1〉 주요색인지 주제분야(류별) 분포

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어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계
종수	9	4	10	82	6	8	33	16	18	26	214

또한 한국의 색인지 간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인 사회과학일반을 비롯하여 비교적 주제분야가 고르게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수상 사회학과 정치학, 교육학분야의 색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통계학과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 등의 주제분야에서의 색인지가 많이 간행되고 있지 않아 역시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사회과학분야 주제색인 현황

주제	사회과학 일반	사회학	통계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 복지	교육학	상업 (경영)	풍습	계
종수	2	13	1	16	5	8	7	6	15	4	5	82

간행연대별 발행종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3년 이전부터 간행되어온 종수는 12종, 1973년에서 1977년까지 27종, 1978년에서 1982년까지 45종, 1983년에서 1987년까지 57종, 1988년에서 1993년까지 90종으로 지속적으로 간행 종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간행 연대별 발행종수

연 대	-1972	1973-1977	1978-1982	1983-1987	1988-1993	계
발행종수	12	27	45	57	90	231

## 2. 색인지 분석

### a. 서명표현

색인지의 서명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인과 동의어로 사용된

용어로서 목록, 문헌집, 자료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중 어떠한 형식이든 서명에 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71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아직도 목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96종(41.6%)으로 역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표 4〉 색인지 서명 대비표

구 분	종합색인	주제색인	계	백분율
색 인	12	59	71	30.7
색 인		33	33	
기사색인	5	9	14	
논문색인	1	5	6	
논저색인	1	2	3	
색인목록	4	6	10	
색 인 집	1	4	5	
목 록	3	95	96	41.6
목 록		5	5	
논문목록	1	13	13	
논저목록	1	16	17	
문헌목록		42	43	
자료목록		9	9	
색인목록		2	2	
목 록 집	1	8	9	
총 램	1	30	31	13.4
기 타	1	32	33	14.3
논저해제	1	3	4	
문 헌 집		6	6	
자 료 집		7	7	
문헌서지		5	5	
자료총록		2	2	
논 문 선		2	2	
문헌속보		7	6	
계	17	214	231	100.0



색인지 서명과 함께 편자도 매우 중요한데 조사에 의하면 표제지나 판권지에서 편자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개인이 30종, 연구소나 학회편이 16종으로 전체 종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b. 수록범위

조사된 한국 주제색인지 214종 가운데 서명 또는 범례에서 구체적으로 주제범위를 밝히고 있는 색인지는 170종이고 나머지 44종은 주제구분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서명에서 분명한 수록기간을 표시한 것은 145종이고 수록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분명치가 않아 색인지를 직접 조사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58종, 그나마 밝혀지지 않은 것이 28종이나 되었다.

수록대상지별 현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속간행물만을 색인대상지로 삼은 것은 53종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하고 연속간행물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포함하여 색인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178종으로 77.1%나 되었다.

<표 5> 수록대상지별현황

구 분	종 수	백 분 율
정기간행물	53	22.9
정간물·단행본	49	21.2
정간물·단행본 학위논문	97	42.0
정간물·단행본 신문	4	1.7
정간물·학위논문	6	2.6
정간물·신문	2	0.9
정간물·단행본 기 타	2	0.9
불 명	18	7.8
계	231	100.0

또한 기사내용의 선택에 있어서 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기사를 제외하여

우량의 정보만을 독자에게 제공하여 실제적인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선택기준을 밝히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몇 종만이 범례나 일러두기 등에서 포괄적인 문구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었다.

#### c. 간행빈도와 누적색인

조사된 색인지중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간되고 있는 색인지는 10종에 불과한데 그나마 각 시도의 교육연수원에서 발간하는 것을 제외하면 산업기술정보원의 「과학기술문헌속보」(월간),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격월간), 학술진흥재단의 「색인집」(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보건사회서지」(년간)가 전부이다. 그 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한 주 제씩 선정하여 1945년 이후 자료를 197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고 학술원에서도 1901년 이후 자료를 1966년부터 분야별로 간략한 해제를 곁들여 발간하고 있다.

또한 조사된 색인지중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2회 이상 누적색인을 발행한 색인지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종뿐이고 대부분의 색인지가 속간되지 않는 소급색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표 6> 누적색인 간행현황

간행회수	2회이상	3회이상	4회이상	5회이상	6회이상	계
종 수	14	3	2	1	1	21

#### d. 분류 및 배열

종합색인지와 주제색인지에 이종으로 기재된것을 제외한 176종에 대한 배열기준을 대별해 보면 <표 7>과 같은데 분류색인이 152종으로서 전체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사전체색인 16종, 연대순색인 8종, 기사명순색인 4종, 그리고 무순이 3종으로 나타났다. 분류색인에 있어서 2차 배열 기준은 저자명순 79종, 논제순 47종, 연대순 26종으로 저자순과 논제순이 지배적이다. 주제명을 부여한 색인지는 8종으로 주제명 아래에서 저자명에 의해 배열한 색인지가 3종, 논제에 의한 배열이 1종이고, 나머지 4종은 저자명

이나 논제와 혼합하여 사전체식 배열을 하고 있었으며, 사전체색인지는 12종으로 주제명순 4종, 주제명과 저자명의 혼합순 3종, 주제명과 논제의 혼합순 1종, 저자명순이 3종, 논제순 1종으로 나타났다.

〈표 7〉 색인지 배열방법

배열 방법		종 수	백 분 율	
분류순	저자명	79	86	
	논제	47		
	연대순	26		
	소계	152		
사전체	주제명	저자명	3	7
		논제	1	
	사제명·저자명혼합	3		
	주제명·논제혼합	1		
	저자명	3		
	논제	1		
	소계	12		
연대순	저자명 2		3	
	논제	2		
	무순	1		
	소계	5		
연간 물명 순	저자명	2	2	
	연대	2		
	소계	4		
무순		3	2	
계		176	100	

또한 자모순 배열에 있어서도 한글 자모순임을 밝히는 용어는 거의 ‘가나다’순이나, 음절, 음순 이라고만 표현했고 ‘가까나’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3종에 불과했으나 일반사전류의 배열형식을 따라 대부분 이 순서를 쓰고 있다고 보아진다.

## e. 기술형식

조사된 자료를 박준식이 제시<sup>41)</sup>한 기술형식상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記述의 순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다수가 기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25종(14%)이 수록면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와 논제에 있어서 저자를 먼저 기술한 것은 116종, 논제가 먼저 기술된 것은 49종으로 나타났다.

## f. 상호참조

미국의 경우 대부분 저자나 주제 또는 논제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사전체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색인지는 대부분(조사된 바에 의하면 90%정도)이 특정 분류체계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분류식 색인이었다. 따라서 상호참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주제명 색인을 택하고 있는 색인지 9종 가운데 ‘~보라 참조’를 사용하고 있는 색인지는 2종, ‘~도보라 참조’를 사용하고 있는 색인지 2종, 양자를 모두 사용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3종으로 나타났다.

## g. 보조색인 및 부록

배열기준별 색인현황을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색인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색인지는 분류순 색인지 152종 가운데 27종, 사전체색인지 12종 가운데 5종, 연대순 색인지 5종 가운데 2종으로 모두 34종이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분류순색인지의 경우 2차배열 기준이 저자명이거나 논제에 관계없이 저자색인이 제일 많이 주어졌고, 분류색인하에 연대순 배열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저자와 논제색인 2가지를 다 마련한 것이 21종이나 되었다.

사전체 색인지의 경우는 저자명색인 2종, 주제색인 3종, 저자명, 논제색인 1종, 저자명, 논제, 주제색인을 모두 갖춘 것이 1종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색인도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이 2종이나 되었다. 그러나 부록으로 별도의 수록대상지명 일람표를 가진 것은 32종으로 19%에 불과했다.

41) 朴俊植(1978), *op. cit.*, pp. 10-17.

〈표 8〉 배열기준별 보조색인 현황

배열 기준		색인종류	종수
1차배열	2차배열		
분류	저자	저자·논제·주제색인	3
		저자·논제색인	8
		저자·주제색인	3
		논제·주제색인	3
		저자색인	33
		논제색인	8
		주제색인	2
		없음	18
	소 계	78	
	논저	저자·논제색인	7
		논제·주제색인	2
		저자색인	24
주제색인		7	
없음	7		
소 계	47		
연대순	저자·논제색인	21	
	저자·주제색인	1	
	저자색인	1	
	논제색인	1	
	없음	2	
소 계	26		
사전체	주제명	저자·논제·주제색인	1
		저자·논제색인	1
		없음	1
	논제	저자색인	1
	주제명·저자혼합	주제색인	3
	주제명·논제혼합	저자색인	1
	저자	없음	3
	논제	없음	1
소 계	12		
연대순	저자	저자색인	1
		없음	1
	논제	저자색인	2
	무순	없음	1
소 계	5		
총 계			169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3년 1월부터 1993년 말까지 한국에서 단행본 형태로 간행된 색인지 231종을 대상으로 한국 색인지의 출판경향과 편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인지 간행현황을 종합색인과 주제색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존의 색인지들은 그 주제분야별로 출판상황이 균등하지 못한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문과학과 순수과학 분야는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색인지 발간이 저조하여 이들 분야 연구자들은 쉽게 서로의 연구성과를 알 수 없는 형편이었고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색인지(74종, 37%)가 집중되어 있는 사회과학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 색인지의 서명표현에 있어서 목록, 문헌집, 자료집 등 여러 종류의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색인과 목록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결과이거나, 색인지 원래의 정의나 기본적 이론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색인제에서 점차 주제별 색인지가 급증하고, 색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색인'이라는 용어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명사항이나 범례 등에서 주제의 범위, 시간적·지리적 범위 그리고 자료의 형태별 범위등이 명기된 색인지가 오히려 드물다. 특히 색인 대상자료는 이용자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연속간행물, 단행본, 학위논문, 신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색인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간행빈도에 있어서는 한국 색인지는 계간이나 연간 등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최신성이나 속보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누적판을 발행하지 않고 있어 검색에 많은 불편이 있다. 이들의 간행빈도를 조정하여 간기를 줄이는 동시에 계속성을 지닌 색인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급탐색시에는 누적색인의 유무가 색인지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누적판이

반드시 간행되어야 한다.

5) 한국 색인지의 대부분(140종, 90%)이 특정 분류표의 체계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분류식색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떤 색인지에서든 가장 훌륭한 배열방법은 이용자가 색인지의 대상인 자료의 구성이나 주제체계를 모르더라도 가장 쉽게 찾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자명, 서명, 분류, 주제명 등의 모든 탐색요소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간하는 색인지들은 주제명과 저자명의 자모순으로 배열되는 사전체 배열방식으로 편성하여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6) 조사된 색인지들은 기술의 순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기본적으로(저자명, 논제명, 수록지명, 권호수, 발행년월, 수록면수)를 포함하고 있었고, 25종(14%)만이 수록면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면수는 이용자가 그 문헌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실제 수록된 위치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문중의 정확한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7) 한국 색인지의 대부분이 분류순색인이기 때문에 상호참조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주제명표목에 의한 배열법을 택하고 있는 색인지마저도 상당수가 상호참조를 경시하고 있다. 검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 등의 상호참조가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보조색인이 편성되지 않은 색인지는 모두 34종으로 전체의 21%정도 되는데 보조색인은 본문에서 배열하고 있는 방법과 다른 면에서 검색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색인된 간행물 리스트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을 각주로 대신함>

## An analytical study on the major Korean periodical indexes

Lee, Jeol-Ja\* · Park, Joon-Shik\*\*

### 〈Abstrac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ajor periodical indexes and catalogs of 231 titles published in Korea in the form of monographs from 1973 to 1993, in order to identify the trends of their publications and the problems in its compilation and to suggest an idea for th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

1. The publication of indexes are concentrated on some subject fields including those of social science. And there should be general indexes in the fields of the humanities and pure sciences for the researches in these fields to consult.
2. The titles of the indexes are represented by various forms.
3. The materials included are extended to all types of them including monographs, serials, these and dissertations, and newspapers, so that enhances the usefulness of the subject indexes.
4. Most of indexes are published in quarterly or yearly and seldom publish the cumulative editions.
5. Most of indexes(140 titles, 90%) are classified indexes.

\* Librarian, Library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6. The descriptions include basic elements of author, title, translator, contributed title, issue number, date, pages, etc. in the case of most of indexes.

7. Cross reference are seldom used, because most of indexes are classified ones.

8. Auxiliary indexes or appendixes are not included in 34 titles of 21%.